

## 6월 소공동체 복음묵상(9.11ㄴ-17)

사도들이 사명을 수행한 에피소드가 나오고 수난에 대한 예고가 있기 전에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님이 빵을 불리신 기적에 대한 짧고도 뜻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빵의 기적이 이 시기에 생긴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을 굳혀 주시기 위해 이때 빵을 불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사명에 대한 참된 뜻을 알고 수난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저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의 한 부분을 담당해야 했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빈 손바닥 같은 존재이고 어떤 문제에도 속수무책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기적을 행하시는 분, 풍성하게 인간의 궁핍을 채워 주시는 분(측은지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고 빵과 물고기를 다 나눠주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도움은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풍부하게 베풀어주시고 하늘과 같은 관대한 마음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이 기적을 낳습니다. 성체의 빵, 하느님의 말씀인 영적인 빵, 또는 애덕으로 도와주는 물질적인 빵도 여러 세대를 걸쳐 계속 이어지고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명 수행은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 서로 사랑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